

고사리손 생애 첫 기부 “오늘은 제가 산타예요”

본보 2024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도담도담영아전담어린이집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18년째 연말 성금·물품 온정
아이들 ‘나눔 실천’ 배워...한일 보육 교류도 30주년

“저금통에 아까운데 받은 동전을 직접 넣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제가 산타래요!”

하트 모양 저금통을 작은 손에 꼭 쥐 문영민(4)군은 최근 광주 동구 도담도담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열린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에서 이 같이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곳은 올해로 18년째 아이들이 직접 모금한 저금통을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전달하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인생 첫 기부’를 실천하는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때문에 저금통 외에도 개인적인 기부와 기저귀 등 물품 나눔이 더해지고 있다.

성금을 전달받은 광주영아일시보호소의 최희다 복지사는 “매년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고 있는 도담도담어린이집에 감사하다”며 “원아들의 선한 영향력이 보호소의 아이들에 확산돼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담도담영아전담어린이집은 설립부터 나눔의 뜻이 깊어 서렸다. 1990년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주 전남여성회에서 광주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아 개원했다.

이후 여성회 부설로 운영돼 오다 2012년 교사 공동운영시설이 해제되면서 당시 여성회 소속이었던 박말신(59·여) 원장이 인수했다.

인수 뒤에도 ▲올바른 인격형성·성장발달 ▲ 창의력 개발 ▲자립심·협동심 ▲나눔·배려 등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시설이라는 여성회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박 원장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기부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공동운영하던 17년 전부터는 “다 같이 해보자”며



광주 동구 도담도담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올해로 18년째 아이들이 직접 모금한 저금통을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전달하고 있다. 박말신(맨 왼쪽) 원장은 최근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가졌으며 ‘인생 첫 기부’를 앞둔 아이들이 각자의 저금통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복기자

연말마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위한 전달식을 열고 있다.

이외에도 도담도담영아전담어린이집은 1992년부터 30여년간 한일보육교류협회에 소속돼 일본 어린이집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한국의 6개 보육시설과 일본의 7개 보육시설로 구성된 협의회는 해마다 번갈아 양국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하며 서로의 보육 제도에 대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협의회는 ▲장애아동 등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 ▲다양한 환경 속 보다 바람직하게 지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보육인의 전문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 등 보육의 과제를 정해 토론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저출산과 다문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소통·노력하고 있다.

박말신 도담도담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은 “사람은 사회 안에서 혼자 살 수 없다.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육시설의 역할”이라며 “보육의 가치를 끊임없이 탐구해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높여 보다 발전하는 어린이집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김대성 진도 민간해양구조대장 해경청 ‘우수민간대원’ 선정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 주관한 ‘2024 바다의인상·우수민간대원’ 시상식에서 김대성(50)씨가 우수민간대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민간대원은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중 각 해양경찰서에서 1명씩 추천해 전국에서 총 20명이 선발된다.

진도군 민간해양구조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자 수색, 현장 안전관리 등 10회 이상 출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수중수색 합동훈련 참가, 연안 체력활동 장소 및 안전시설물 예방 순찰, 위탁교육·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역량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그는 2008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지역대 활동을 시작으로 2013년 한국해양구조협회 나주구조대, 2016년 해양경찰교육원 구조능력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15년 이상의 구조 분야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다.

김대성씨는 “앞으로 더 민간해양구조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장흥경찰, 연말연시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장흥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자 서부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순찰에는 범죄예방계, 서부자율방범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된 장흥 토요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가시적 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비상벨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홍원 장흥경찰서장은 “공동체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기자

인사

- KBC 광주방송 ◇임원 선임 ▲보도국장 장길효성(이사대우)
- ◇차장 승진 ▲편성제작국 강선일 ▲ 기술국 김성현
- ◇차장대우 승진 ▲서울방송센터 나병욱 ▲보도국 정경원 ▲광고사업국 김우중

행사

- ▲제6회 담양산타축제 ‘중앙로 56 겨울 마법으로의 초대’ 개막식=24일(화)·25일(수) 중앙공원 주무대(산타방) 담양읍 중앙로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56 담양군 행정국 관광과 관광정책 (061-380-3152).

결혼

- ▲노성일·이호영씨 차남 진성군(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한상근·남금자씨 장녀 성숙양=28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부음

- ▲최숙희씨 별세, 박찬수씨 부인상, 박성철·성재·성남씨 모친상, 이선영·나상아씨 시모상, 경민·태영·지유·경원씨 조모상=발인 24일(화) 오전 11시30분 광주 광산구 스키야트레킹장 203호(062-951-1004).



전남자치경찰청, 청소년 자치경찰 성과회 ‘성료’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 김중신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호범 전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청소년 자치경찰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자치경찰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디페이크 범죄 예방 솜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6개 상영을 시작으로 청소년 자치경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우수 활동 4팀과 학교전담경찰관 2팀을 시상했다. 수상팀은 여주시,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에서 활동한 청소년 자치경찰 프로젝트팀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주목받았다.

이러 청소년이 참여하고 기획한 다양한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활동은 디페이크 켈린지, 연극 공연(어쩌면 우리 이야기), 2024년 화순경찰서 청소년정책자문단 등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 창의적 방법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청소년이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욱 많이 참여하고 지속 협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동강대, 한국어학당 겨울학기 신입생 입학식

동강대학교가 한국어학당 겨울학기 신입생 27명을 맞이했다. 23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내 보건관 율곡홀에서 베트남 학생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학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유학의 필수조건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록복, 여름, 가을, 겨울학기 나눠 신입생을 모집하고 1년 과정을 운영한다.

올 3월 개소한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그동안 봄·여름·가을학기를 통해 각각 20명, 23명, 28명

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베트남 대학과 국내·외 어학원, 전문대학 최초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Nghe An Trading and Tourism College), 한베산업기술대학교(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College) 등 협약 대학을 방문해 현지 학생 면접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다. /김대기자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은봉희 광주 남구의회 의원이 23일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뛰어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 의원은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남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능동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항상 지지해 주고 함께 해준 구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성학기자

여양고 강근우·전남과학고 김동윤 ‘대한민국 인재상’

전남교육청은 23일 “여수 여양고등학교 강근우(3학년) 학생과 전남과학고등학교 김동윤(3학년) 학생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양고 강근우 학생은 과학전람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과학고 김동윤 학생은 발명과 천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접합부 크기 조절이 가능한 천체망원경 어댑터’ 발명을 통해 제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024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역심사와 중앙심사를 거쳐 고등학생 50명, 대학·일반인 50명 등 총 100명이 선정됐다. /김대기자



강근우 김동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두 학생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구례 읍내파출소, 현금다액 취급업소 특별방범

구례경찰서는 23일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해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강력 범죄의 집중 표적이 되는 편의점, 미용실 등 여성 단독업소와 금융기관, 금방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 등에 대해 방범 진단과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을 함으로써 치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말연시 전후로 발생률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낚시기 범죄, 강·철도 범죄 피해 예방법에 대한 각 업소별 전방위 홍보를 펼쳤다. 흥영진 읍내파출소장은 “연말연시 범죄 분위기



기 제압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탄력 순찰을 집중 실시하고, 자체 경력뿐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 경찰 협력단체와의 합동순찰 등 협력치안 활동을 강화해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기자